



# KIA 이의리, 첫 실전 147km

## “올 목표, 첫째도 둘째도 건강”

“모든 구종 다 스트라이크 던지려 했고 만족스러워”

“목표는 건강입니다.”

KIA 타이거즈 좌완 이의리가 첫 실전에서 위력을 뽐냈다. 지난 4일 오키나와 긴초베이스볼스타디움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등판해 2이닝을 소화했다. 성적은 2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이었다. 3년 연속 10승과 150이닝 돌파의 희망을 안겨주는 힘찬 첫 출발이었다.

첫 타자 김민혁을 1루 땅볼로 가볍게 처리했다. 강병호에게 우중간 안타를 내주었으나 중견수 최원준의 2루 총알송구 덕택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얻었다. 로하스와는 승강이 끝이 불뉘를 허용했고 박병호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흔들리지 않고 장성우를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마쳤다.

이어 2회에서는 황재균과 천성호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오윤석은 중견수 뜬공으로 잡고 등판을 끝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32구를 던졌다. 직구 최고구속은 147km를 찍었다. 모든 구종에서 위력을 보였다. 구위로는 팀내에서 최고대접

을 받는 투수다웠다.

이의리는 올해 3년 연속 10승과 규정이닝 돌파를 기대받고 있다. 작년에는 10승을 따냈지만 규정이닝을 돌파하지 못했다. 제구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았다. 지난 겨울 미국 시애틀에서 드라이브인 센터에서 훈련을 했고 캔버라 1차 캠프와 오키나와 2차 캠프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

이의리는 “모든 구종을 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고 만족스럽다. 작년에는 커브를 많이 안던졌는데 올해는 수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드라이브인 센터에서 커브의 구종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은 7% 정도를 던졌다. ABS 도입으로 커브의 필요성도 커졌다. 위력적인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에 타이밍을 뺏는 커브의 비중을 높인다면 타자와의 승부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다.

아울러 국가대표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은 순탄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 3월 대표팀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표팀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3월17일), LA 다저스(3월18일)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미 신인시절 도쿄올림픽, 작년 2월과 3월 WBC, 11월 APBC 대표로 나선바 있다. 계속되는 차출로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건강을 가장 큰 목표로 세웠다. “올해 4년차이다. 그동안 피로가 쌓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1번 목표부터 5번까지 모두 건강이다. 건강만 하면 자연스럽게 규정 이닝을 넘어갈 수 있다. 튀김을 먹지 않는 등 건강한 음식을 먹는 생활습관도 들이고 싶다. 술과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작년 안된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 작년 시애틀에서 매커니의 방향을 잘 잡아주어 도움이 많이 됐다. 거기에서 배운 것이 수확이었다”고 말했다. 드라이브인 센터에 참가했던 마무리 정해영, 선발 윤영철 등이 스피드업에 도움을 받았다. 이의리는 투구 매커니 인식을 통해 제구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에이이스의 등극을 위한 절차막이었다.

이슬비기자

## 불방망이 휘두른 김하성·이정후, MLB 시범경기 휴식

### 샌디에이고 고우석도 결장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팬타를 휘두르고 있는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나란히 휴식을 가졌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솔트리버 필즈 옛 토링 스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4 MLB 시범경기'에 결장했다.

김하성은 시범경기에서 순조롭게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7경기 모두 출루에 성공했고, 타율 0.400(15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3득점 2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259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이정후 또한 하루 쉬어갔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나서지 않았다.

이정후는 빠르게 빅리그에 녹아들고 있다. MLB 시범경기에 출전한 5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생산했다. 타율 0.462(13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3득점 1도루 OPS 0.462로 활약했다.

김하성의 팀 동료인 볼렌 투수 고우석(26)도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시범경기에서 경쟁을 펼치는 고우석은 2차례 구원 등판해 홀드 1개를 수확했고, 2이닝 3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한편 샌디에이고(7승 7패)는 애리조나(6승 6패)에 3-5로 패했고, 샌프란시스코(3승 6패)는 밀워키(3승 7패)를 13-8로 눌렀다.

## 프로야구 유료화 시대, 구단 대환영

### “야구 산업 한단계 발전 계기 될 것”

#### KBO 리그 TV 중계방송 지난해와 동일...CJ ENM과 유무선 중계 독점 계약

“KBO리그 중계 유료화 시대, 프로야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4 KBO 리그 TV 중계방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상파 3사(KBS, MBC, SBS)를 비롯해 5개 스포츠 케이블 채널(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SPOTV, SPOTV2)이 책임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번 중계방송권 계약으로 3년간 총 1620억원(연 평균 540억원)을 받게 됐다.

또한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업체 ‘티빙’을 보유한 CJ ENM과 유무선 중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3년간 연평균 450억원을 받는 조건이다.

동시에 티빙은 프로야구 모바일 중계 유료화를 선언했다. 이제 야구팬이 모바일로 야구를 시청하려면 매달 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야구팬들은 지금껏 무료로 프로야구를 시청하다가, 유료화 선언에 다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팬은 OTT 시대에 5500원은 적절한 금액이라는 반응도 있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야구라는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 A 구단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프로야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프로야구를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외국인 봐도 환경이 다르다. 미국, 일본은 오래 전부터 유료로 진행돼

왔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도권 지역 B 구단 관계자는 “언젠가는 프로야구 중계가 유료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메이저리그(MLB)처럼 유료화가 됐다고 본다. 5500원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료화가 정착될 하는 과정이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티빙이 유료화 금액 책정 과정에서 의견을 구했다. KBO의 의견을 많이 전달했고, 티빙 측에서 일부 받아들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 10개 구단들은 중계권료로 990억원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 이는 지난해(구단별 76억원) 대비 2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단은 23억원씩 늘어난 중계권료로 결국 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구단 관계자는 “프로야구 구단들은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23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벤트,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도 있다. 팬들이 야구장에서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 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구단들이 모그림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된다. 23억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티빙이 ‘티빙 슈퍼 매치’ 등 특화된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홍명보도 극찬한 ‘득점왕’ 주민규, 3월 A매치 깜짝 승선할까

### K리그 득점왕 출신...부진한 한국 축구 공격에 변화 줄 선수 평가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주전 공격수인 주민규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1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에 나설 3월 A매치 명단을 공개한다. 임시로 A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게 된 황선홍 23세(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직접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맞대결을 벌인 뒤, 26일 태국 방콕에서 원정으로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맞대결은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 4차전으로 진행된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에 중요한 일정이다. 지난 1, 2차전에서 싱가포르(6-0 승), 중국(3-0 승)을 꺾은 한국이 태국과의 2연전에서 승리한다면 조기에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할 수도 있다.

또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준결승전 패배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총돌로 흔들리는 기강 등 대표팀 분위기 반전도 이뤄내야 한다.

이에 축구협회는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의 후임으로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겼다. 황 감독은 3월 A매치를 통해 여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새로운 선수 명단이 쇄신의 첫발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동안 변화가 적었던 공격진에 깜짝 발탁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그 중심에는 주민규가 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서는 황의조(알라야스포), 조규성(미트윌란), 오현규(셀틱) 등이 기용됐다.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로 대표팀 승선이 불발된 이후에는 조규성과 오현규만 선발됐다.

하지만 조규성과 오현규는 모두 아시아컵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다. 조규성은 소속팀 복귀 이후 경기력을 되찾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인 수준은 아니다. 오현규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결정하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들과 함께 선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주민규는 꾸준한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2021시즌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생애 첫 K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2022시즌에는 득점 랭킹 2위에 그쳤지만, 당시 전북현대 소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조규성과 득점은 같았다. 땀 경기 수가 더 많아 연속 득점왕에 실패했다.

2023시즌에는 다시 명예를 되찾았다. 울산의 리그 2연패를 이끌면서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계속되는 골 세례에도 대표팀과는 연이 없었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전 감독, 클린스만 전 감독 등 사령탑이 바뀌어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경쟁자들이 모두 부진한 반면, 주민규는 올해 공식경기에서 3골을 넣는 등 여전히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어 이번이 선발 직격탄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주민규의 소속팀 사령탑인 홍명보 울산 감독도 “주민규가 시즌을 준비하면서 관리가 정말 잘 됐다. (최전방 공격수지만) 활동량도 팀에서 3, 4번째는 되는 것 같다”며 칭찬했다.

선수 본인 역시 의욕이 넘다르다. 주민규는 “감독님이 바뀌었으니 이전보다는 기대감이 더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낸 뒤, (국가대표는)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소속팀에 더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11일 명단이 발표되는 대표팀은 18일 소집될 예정이다.

## 높이뛰기 세계실내선수권대회 3위 이상혁 “파리 올림픽은 우승”

2024년 세계실내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 이상혁(27·용인시청)이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상혁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월5일 실내 시즌을 위해 출전한 뒤 두 달 만이다.

이상혁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에미리츠 아레나에서 치러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을 넘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2년 베오그라드 대회에서 2m34로 우승했던 이상혁은 대회 2연패엔 실패했다.

하지만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며 동메달 상금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챙겼다.

이상혁은 “부상 없이 실내 시즌을 마쳤다. 대회 시상대에 올라 이제는 올림픽을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이상혁은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도전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선 2m26을 뛰어 결선에 오르지 못했으나, 2021 도쿄 대회에선 2m35를 넘어 4위에 올랐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첫 메달에 도전한다.

남자 높이뛰기는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의 대미를 장식해 왔다.

이상혁은 “그걸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각오다. 참을 거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 무대의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힘써 말했다.